



29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한국과 러시아와의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유은희가 러시아의 수비에 막히고 있다. 이날 한국은 26대30으로 패했다.

한국, 러시아에 석패 결승 좌절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 4강전 26-30 패

20세 이하 한국여자주니어 핸드볼팀이 제 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29일 상복구 안암동 고려대 화정 체육관에서 열린 4강 토너먼트에서 유은희(벽산건설), 이은비(부산시설관리공단.이상 8골)가 분전했지만 실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26-30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번 대회에서 전승을 거두며 4강에 올라온 한국은 첫 우승을 노렸지만 이날 패배로 3-4위권으로 밀렸다. 우승 후보 러시아는 시차가 적을지 않은 채 맞은 예선 1차전에서 몬테네그로에 일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스피드를 겸비한 장

후반 들어서면서 한국은 유은희의 7m 스로, 이은비의 속공이 잇따라 러시아 골키퍼에게 맞았고 러시아는 전수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해 후반 4분이 지난 때 20-15, 5골차가 됐다. 그대로 무너지는 듯 했던 한국은 후반 14분이 지난 때 절호의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경기가 격렬해지면서 러시아는 선수 3명이 잇달아 2분간 퇴장을 당해 한국은 7-4로 싸우는 수적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슛은 러시아 골키퍼 마리아 바사라브의 선방에 막혔고 오히려 아카데미나 알리나 등에게 득점을 허용하면서 점수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은 여덟차례나 7m 스로 기회를 잡았지만 4골 밖에 넣지 못했다. 한국 골키퍼들은 방어를 25% 이하에 그친 반면 러시아가 주전 골키퍼 바사라브는 39.4%의 철벽 수비를 뽐냈다.

연협뉴스

한국 청소년야구 파나마 꺾고 조 2위 확정

8강 토너먼트에서 호주와 격돌

제24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이 예선에서 조 2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최재호(신일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선더베이에서 열린 파나마와 조별리그 5차전에서 장단 10안타를 적중시켜 12-2, 7회 풀드게임 승리를 거뒀다. 캐나다, 쿠바, 네덜란드 등 6개 나라로 짜인 B조에서 4승1패를 거둔 대표팀은 이날 체코를 8-7꺾은 캐나다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한국과 캐나다는 4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한국이 예선에서 캐나다에 일격을 당한

탓에 승자승 원칙에 따라 2위에 머물렀다. B 조 1위가 유력했던 아마추어 최강 쿠바는 이날 네덜란드에 8-9로 패해 3승2패로 조 4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한국은 8강 토너먼트에서 A조 3위인 호주를 격돌한다. A조 1,2위인 미국과 대만 등 꼴찌러운 팀은 피하게 됐지만 호주 역시 예선에서 게임 당 평균 10.4득점을 올리며 만만찮은 공격력을 과시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또 호주를 꺾더라도 4강에서 쿠바-미국 경기 승자와 대결하게 돼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1회 밑이어나 불넷으로 손쉽게 2점을 번 대표팀은 계속된 찬스에서 백세웅(광주일고)의 2타점 적시타가 터져 나와 4-0으로 앞서갔다. 4-2로 쫓긴 5회 1사 1,3루에서는 신철언

화순제일중 조대권 학생골프 우승

대불대총장배 남중부

조대권(화순제일중)이 대불대학교 총장배 중고등학교 골프대회에서 남중부 1위를 차지했다. 조대권은 지난 27~28일 무안컨트리클럽 서 A·B 코스(파 72)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8개,보기 3개로 5안타를 기록한 후 마지막날 이븐파를 쳐 합계 139타로 남중부 우승을 차지했다. 조대권은 지난 4월 14일 영암 아크로컨

트리클럽에서 열린 전라남도 교육감배 골프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EMAX배 제 21회 스포츠 조선 전국 중고등학교 골프대회 예선에서 9안타를 몰아쳐 63타를 기록하는 등 후반 11번홀부터 18번홀까지 연속 8개의 버디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 21~22일 900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전남일보배 전국중고등학교 골프대회에서 145타 1타차로 중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대권은 "더욱 더 열심히하러 화순과



화순제일중학교를 빛내고 최경주 양승은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심 없이 노력하겠다"며 "도움을 주신 전남준화순군수, 최석 프로와 무안 아카데미 오순탁 감독, 남광주 CC, 무등산 CC, 조아벨리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용대 모교' 화순실고 V스매싱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광주 산월초 여자부 우승

화순실고가 화순 하나문 문화스포츠센터에서 28일 막을 내린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2010 화순-비타 전국 초·중·고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서 남고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스포츠총동아리 동아일보사,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 중·고배드민턴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160여명 2000여명이 참가했다. 각 부문별 우승자와 팀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남자 초등부 양성초(부산) ▲여자 초등부 산월초(광주)▲남자 중등부 아현중(서울) ▲여자 중등부 범서중(울산) ▲남자 고등부 화순실고(화순) ▲여자 고등부 유봉여

고(강원) <개인전 단식> ▲남자중등부 최승규(서울 아현중) ▲여자중등부 김효민(울산 범서중) ▲남자고등부 안병국(충주 공업고) ▲여자고등부 유지혜(경남 성서고) <개인전 복식> ▲남자중등부 최승규/정태민(서울 아현중) ▲여자중등부 김효민/윤민주(울산 범서중) ▲남자고등부 이재우/이상준(강원 진광고) ▲여자고등부 김소영/김혜진(대구 제일여상) <개인전 혼합복식> ▲중등부 오상호/한소연(제주) ▲고등부 이상준/한은정(강원) /중부추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시즌 19번째 2루타를 때려내고 타격감각을 조절했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3번타자 유익수로 출전, 3타수1안타를 때렸다. 전날 안타 3개를 쳐 3할 진입을 바라뒀던 추신수는 타율 0.297을 유지했고 지난 3일 오를랜드와 경기부터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클리블랜드는 경기 초반 집중타를 허용, 양키스에 0-8로 패했다. /연협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기보배 등 '태극공사' 드림팀 첫선

(광주시청)

내달 3일 美 3차월드컵 출격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양궁 남녀 대표팀이 처음으로 국제경기에 나선다. 29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대표팀은 8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유타주 오그던

에서 열리는 국제양궁연맹 3차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출국한다.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태극 공사를 위한 선보일 경기력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대회다. 특히 FITA의 경기규정 변경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개인전에 도입된 세트제에 선수

들이 얼마나 적응하는지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하다. 세트제는 토너먼트 과정에 치러지는 3세트나 5세트 맞대결에서 세트 승점을 따져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법이다. 올해 여자 대표팀은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윤옥희(예천군청), 주현정(현대모비스), 김문정(청원군청)으로 구성됐다. 남자 대표팀에는 임동현(청주시청)과 오진혁(농수산협소공), 이창환(두산중공업), 김우진(충북체고)가 포진했다. /연협뉴스

산행안내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Content. Contains hiking schedule for various trails including Mt. Inwang, Mt. Taehwang, etc. with dates from August 1st to 12th.

Notice titled '회신불합 및 건설업양도공고' containing legal not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ompanies and individuals.